

똑
똑
씨

직업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나이 : 35세

신장 : 182cm, 체중 : 65kg

외모 : 매우 스마트해 보이나,
어딘가 모르게 어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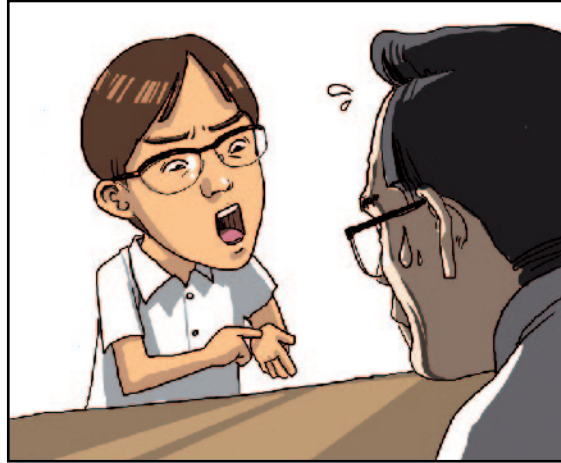
성격 : 무척 수줍음을 많이 타나
이상형의 여성을 보면
집념의 사나이로 변신

특기 : 주체할 수 없는 박학다식
슬로건 : 총각탈출



"재회"

글 _ 김희정 · 대외협력과 · khj@kisti.re.kr



똑똑씨는 날카롭게 얼굴을 콧코 찌르는 햇살이 잔인하다는 생각을 한다. 어느새 진초록으로 변해버린 나무들의 집요한 생명력 앞에 한껏 기가 죽어 굽은 어깨가 더욱 앞으로 처진다. 미모양과 연락이 두절된 지 이주일. 그러니까 머릿속이 마구 종이를 구겨 넣은 것 같이 심란하고, 하루 종일 기분이 들쭉날

쭉한 지 벌써 이주일이나 됐다는 얘기다. 급기야 어제는 의사로부터 우울증이라는 진단까지 받은 똑똑씨. 그러나 의사 앞이라고 똑똑씨 특유의 장광설이 잠잠한 건 아니다.

“물론, 우울한 기분과 우울증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쯤은 압니다. 인체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이 손상돼서 세로토닌, 멜라토닌 같은 호르몬이 부족해지고 그 영향으로 생기는 병이 바로 우울증이며, 의지가 약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감기 같이 누구나 쉽게 걸리는 병이라는 것두요. 호르몬 분비 체계만 약물로 치료하면 금방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어떤 해피메이커를 먹는 것이 저에게 부작용 없이 맞을까 하는 것을 알려달라는...”

그때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소리. 미모양이다!! 전화를 받자마자 똑똑씨, 언제 우울했냐는 표정으로 이를 허영계 드러낸 채 총알같이 밖으로 튀어나간다. 의사, 도깨비에 홀린 듯 멍하다.

똑똑씨와 미모양. 뽕뽕맞게도 놀이터 그네에 앉아있다. 둘 다 주뻗주뻗 서먹한 표정이다.

“저...”

“저기...”

“... 똑똑씨, 절대 말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요. 저... 사실은 그때 그 사람... 오빠예요. 그냥 오빠는 아니구... 스무살까지는 그냥 오빠지 알고 살았는데... 제가 병원에 갔다가 온 집안 식구가 O형인데, 저만 A형인걸 알았어요. 제가 엄마 친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나왔죠. 무슨 신파소설 읽는 거 같죠?... 실망했어요?”



똑똑씨, 순간 입이 스마일 라인으로 쭉 찢어진다.



“그런 거였어요? 그게 다예요? 그것 때문에 날 안 만나준 거예요? 미모씨, 어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나한테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미모양, 왕방울만한 눈에 눈물이 그렇그렇하다. 미모양에 대한 안쓰러움과 기쁨 그리고 터진 물고처럼 쿵쿵 넘

쳐나는 미모양에 대한 사랑을 주체 못한 똑똑씨, 그만 미모양을 외락 끌어안아 버린다. 갈비뼈가 으스스하기도.

“걱정 말아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지켜줄게요.”

“... 똑똑씨!!”

“옛날이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백 년 전까지만 해도 혈액형 구분이 없었으니까 미모씨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 않아도 됐을 텐데...”

세상 슬픔을 다 떠안은 듯 한껏 우울해 있던 미모양, 똑똑씨의 말에 눈을 반짝 뜬다. 목소리 또한 철없고 명랑 발랄한 이전의 버전으로 급속히 전환된다.

“정말요? 그럼 그때는 친부 친모 따지기가 정말 힘들었겠네. 와.. 불륜천지였겠는데요? 아참, 그럼 수혈은 어떻게 해요? 애를 낳거나 수술을 하거나 할 때.”

“사람이 죽어나니까 급한 대로 그냥 수혈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반쯤은 죽었다고 해요.”

“어머 어머!! 너무 끔찍하다!!”

“어차피 죽을 거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수혈을 받았던 거죠. 혈액형이 미모씨한테 아픔을 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혈액형 분류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살다보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잖아요. 참, 그거 알아요? 동물도 혈액형이 있는데, 원숭이는 사람하고 혈액형 종류가 똑같구요, 소는 12가지, 말은 7가지, 돼지는 혈액형이 15개나 돼요. 그러구 사람처럼 혈액이 뭉치는 반응이 없어서 수혈도 자유롭고 말이지요.”

슬픔이 가득하던 미모양의 눈은 어느새 똑똑씨의 지식에 대한 한없는 존경으로 가득 찬다.

“똑똑씨! 어쩔 그렇게 똑똑해요. 똑똑씨 말 들으니까 세상이 선명해지는 거 같구, 아무 문제도 없는 거 같구. 흑흑... 너무너무 기운 나고 좋은 거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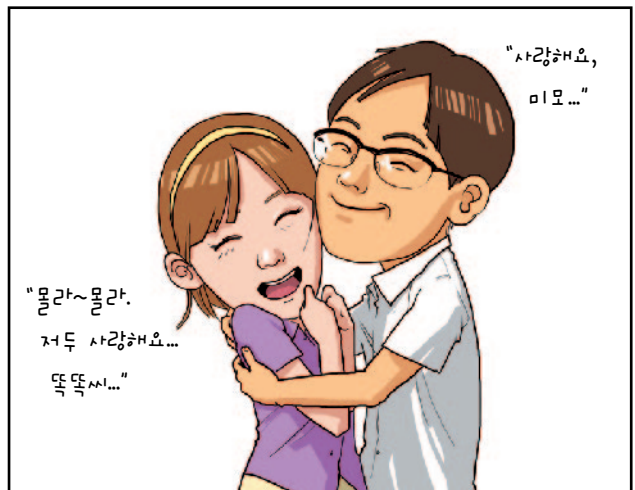
지난 이 주 동안 그 똑똑한 말을 들을 수가 없어서 우울했던 거 같아요.”

미모양, 급기야 닭똥 같은 눈물을 똑똑 떨어뜨리며 똑똑씨의 길고 휘청휘청한 몸매에 어린애처럼 매달린다. 두 사람의 눈길, 찌지직 소리를 내며 허공에서 부딪히고 똑똑씨, 다시 한 번 갈비뼈가 으스스하게 미모양을 끌어안는다. 날이 어둡고 비라도 추적추적 내린다면, 영락없는 느끼 멜로드라마의 한 장면이다.

“다이내마이트 성분 중에 니트로글로세린이라는 게 있어요. 1200배 이상의 부피로 팽창하면서 폭발하기 때문에 엄청난 파괴력을 갖죠. 아마 니트로글리세린 때문에 전쟁에서 죽은 사람만 해도 수십, 수백만 명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심장발작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면 강력하게 혈관을 확장시켜서 극한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거든요. 미모씨 못 보던 이 주 동안 사랑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겠구나, 생각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근데 이제 미모씨를 보니까, 사랑이 죽어가던 저를 살리네요. 사랑은 니트로글리세린과 같은 것인가 봐요.”

“어머 어쩔... 그렇게 멋진 말을 다해요.”

똑똑씨, 한껏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한층 느끼해지더니, 드디어 용기를 낸다.



“사랑해요, 미모...”

“몰라 몰라. 저두 사랑해요... 똑똑씨...”

사랑고백 또한 참으로 과학적으로 하는 똑똑씨. 그러나 미모양에게 세상에 이보다 더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프로포즈는 없다!! **KISTI**

<똑똑씨의 박학다식은 다음 호에도 계속됩니다.>